

S-Oil, 영업이익 1조원 넘는다!

한국투자증권, 국제유가 강세 영향 ... 목표주가 7만5000원 제시

한국투자증권은 S-Oil이 배당락 영향보다 경영실적 호조에 주목해야 한다며 6개월 목표주가를 5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, 투자의견을 <중립>에서 <매수>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.

황규원 연구원은 “탄탄한 세계 석유제품 가격의 상승 사이클과 S-Oil의 풍부한 잉여 현금을 고려한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또 S-Oil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2004년 1조2183억원, 2005년 1조3588억원으로 종전보다 각각 53.8%, 180% 높여 잡았다. 국제유가가 계속 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.

아울러 S-Oil이 2004년과 2005회계연도에 당초 전망한 2500원보다 많은 주당 3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했다.

<화학저널 2005/01/17>